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3일 월요일 음 5월 1일 (8물)

기상정보

맑음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8℃, 낮 최고기온은 24~26℃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10%	제 주	0%
10%	성 산	0%
10%	고 산	0%
10%	서귀포	0%

	해뜸 05:25 / 해짐 19:40	달뜸 05:16 / 달짐 19:28
물때	만조 10:11 / 23:04	간조 04:55 / 16:47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9/26℃
모레	맑음	19/26℃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한국 희토류 수입 42%가 중국산

"수출제한시 치명타 우려"

중국 희토류 무기화 위협.

한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가운데 사실상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국내 전자산업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광물로 꼽힌다.

2일 광물자원통계포털의 '2019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토류 수입 규모는 액수 기준으로 약 6935만2000달러(약 826억7000만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39%), 프랑스(12%), 미국·대만(각 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관세청이 발간한 '희토류 수입동향' 보고서와 비교하면 중국산 희토류 수입 비중은 2011년 72%보다 30%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 의존도는 12%에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탈(脫)중국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가공 기술이 좋아 희토류 수출량이 많은 일본도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온다"면서 "중국산 희토류는 활용도가 높아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현 영 종
편집부국장

제2의 산림녹화운동으로…

학창시절, 창문 너머 뒷산은 민둥산이었다. 중간중간 앉은뱅이 소나무서 너 그루가 전부일 정도로 헐벗은 모습이었다.

당시 읍·면지역 일부 주민들은 근처 야산에서 땔감을 구했다. 보리짚 등을 사용하거나 삭정이를 꺾고 떨어진 솔잎을 거두며 생활했다. 덕분에 입산금지 조치로 보호되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모양새였다.

30여년이 흐르며 사정은 확연히 달라졌다. 춘삼월이면 하얀 벚꽃이 온 산을 뒤덮는다. 여름이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도심 속 쉼터가 되기도 한다.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겨울엔 꼿꼿한 모습의 나무들이 일상을 위무한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림녹화를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온 국민이 녹화사업에 뛰어들었다. 새로운 수종이 개발되고, 산림보호 기술 등의 체계가 갖춰지며 30여년 만에 국토의 65% 이상이 산림으로 바뀌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산림의 황폐도가 고질적이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UN의 평가가 나온지 30년만의 일이다.

도심 옥상에서 보이는 제주시는 잿빛이다. 녹지 몇몇을 제외하면 황량한 빌딩숲으로 가득하다.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마저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왜소하다. 도심 자투리땅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둔갑한지 오래다. 한여름 주민들의 쉼터가 됐던 노목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거나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개발에만 매몰돼 야금야금 콘크리트로 대체한 결과다.

세계 유명 도시들은 오래 전부터 도시숲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숲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이산화황 같은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줄여준다. 홍수 방지, 냉·난방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조성된 4곳의 도시숲이 1년간 364kg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먹어 치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시숲을 '미세먼지 필터'라고 일컫는 이유다.

미국은 일찍부터 도시숲 조성에 노력해 왔다. 민간과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 정원 속 도시를 목표로 '파크 커넥터(Park Connector)' 프로젝트를 수십년째 진중이다. 철도 수송로를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도시에 수직숲 건설을 추진중이다. 서울·인천·수원 등 국내 주요 도시들도 도시숲 조성에 한창이다.

제주도가 '숲속의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곳곳에 바람길 숲·산림 조경숲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내에 도시림도 대폭 확대한다. 제주·서귀포시도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숲 조성에 나섰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다 정교한 밑그림이 필수적이다. 행정 일변도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도민·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 마스터플랜도 서둘러야 한다. 지역·수종에 대한 고민없이 무조건 심다가는 사업을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50여년 전의 성공적 산림녹화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정부의 의지·치밀한 계획이 있어 가능했다.

열린마당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이해하기

오 종 찬
제주도 생활환경팀장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양은 13% 정도인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함으로써 도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노후경유 차량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보다 3~11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전 지역에서 오전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긴급·장애인·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고농도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 저감조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서울은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은 6월 1일부터 그 밖의 시도는 올해 또는 내년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5등급에는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Euro3 이전)된 차량이 해당되고, 휘발유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로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1988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확인은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51대에 대해 조기폐차 등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8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조기폐차, LPG 신차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9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우리 함께 해요, 행복한 복지 연동!

김 상 현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연동주민센터와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1월 9일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위원을 위촉했다. 지역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조직·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지통장, 지역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도내 최초로 위촉된 '연동복지통장'은 지역 내 가구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근황 파악,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복지업무에 일조하고 있다.

연동주민센터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주민복지공동체 '우리동네 삼촌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부조나 민간자원에서 지원이 불충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으로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적·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매월 1회 자생단체 회의시 복지사각지대 발생원인 등을 찾아내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 장년가구를 전수조사하면서 1인가구를 발굴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집안정리, 도배, 전기배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가구를 발굴해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시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연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구는 4만3437명이다. 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우리동네 삼촌 알리미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위기가구, 거동이 어려운 복지수요자들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년생 * 황금향 3년생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궁천 (궁천변이지) 1,2,5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한라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자갈(돌멩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